

고대 중국 별자리에서 중관(中官)과 외관(外官)의 점이 경계*

안상현†

1. 서론

중국의 성관(星官)은 그 기원이 무척 오래되었다. 갑골문에도 28수(宿)가 나타나며, 『서경(書經)』, 『시경(詩經)』, 『국어(國語)』와 같은 고대 문헌에 성관이 등장한다.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따르면, 전옥(顓頊) 시대의 중(重)과 여(黎), 요(堯) 시대의 희(羲)와 화(和)를 비롯하여, 하(夏)의 곤오(昆吾)와 은(殷)의 무함(巫咸)과 주(周)의 사일(史佚) 등의 천문가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춘추전국시대의 각 제후국에서 활약한 천문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함(巫咸), 감덕(甘德), 석신(石申)의 학설이 후대의 종주가 되었다고 한다.¹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1.43.3.761>

* 이 논문은 2021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기본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R1F1A1057571).

† 한국천문연구원, sha@kasi.re.kr

¹ 降在高陽，乃命南正重司天，北正黎司地。爰泊帝嚳，亦式序三辰。唐虞則羲·和繼軌，有夏則昆吾紹德。年代縣邈，文籍靡傳。至于殷之巫咸，周之史佚，格言遺記，于今不朽。其諸侯之史，則魯有梓慎，晉有卜偃，鄭有裨竈，宋有子韋，齊有甘德，楚有唐昧，趙有尹皋，魏有石申夫，皆掌著天文，各論圖驗。其巫咸·甘·石之說，後代所宗。『晉書』卷11, “天文志·上” 이 논문의 모든 사료는 臺灣 中央研究院의 漢籍電子文獻資料庫에서 제공하는 사료를 사용하였다. <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 (2021. 12. 24. 접속)

이러한 여러 학파의 성관(星官)이 하나의 체계로 처음 종합된 것이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이다. 사마정(司馬貞)의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따르면, 천관(天官)에서 관(官)은 성관(星官)이라는 뜻이며 천문(天文)에는 오관(五官)이 있다고 하였다.² 여기서 오관(五官)은 구체적으로 중(中), 동(東), 남(南), 서(西), 북(北) 등의 오궁(五宮)을 말한다. 이 성관 체계를 계승한 후대의 『한서(漢書)』 “천문지(天文志)”는 그 첫머리에 “무릇 천문은 성도(星圖)와 문적(文籍)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경성(經星)과 상수(常宿)의 중외관(中外官)이 무릇 118명(名)이고, 총수(總數)는 783성(星)이다.”³라고 하였으니, 그때 이미 중외관(中外官)이란 개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로 중국의 삼국말(三國末) 진초(晉初)에 진탁(陳卓)이 석신(石申), 감덕(甘德), 무함(巫咸) 등 삼가(三家)의 성관을 종합하여 28수 및 중관(中官)과 외관(外官)으로 정리하여 『삼가성경(三家星經)』을 저술하였다. 이 성관 체계는 ‘28수 및 중·외관 체계’라고 부를 수 있다. 『삼가성경』은 현재 전하지 않으나, 『개원점경(開元占經)』,⁴ 『삼가부찬(三家簿讚)』,⁵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⁶ 『돈황사본(敦煌寫本)』(P.2512) 등에 남아 있으므로 이 문헌을 종합하면 그 면모를 알 수 있다.⁷

당(唐) 초기인 정관(貞觀) 15년(641)에 이순풍(李淳風)은 『진서(晉書)』 및 『오대사지(五代史志)』를 수찬(修撰)하는 데 참여하였고, 이때 수찬한 “천문지(天文志)”, “율력지(律曆志)”, “오행지(五行志)”가 나중에 『수서(隋書)』에 편입되었다.⁸ 결과적으로 『진서』와 『수서』의 “천문지”는 이순풍이 저술한 것이

² 색은(索隱)에 이른다. “천문에는 오관(五官)이 있다. 관(官)이란 성관(星官)이다. 별의 자리[星座]에는 존비(尊卑)가 있는데, 마치 사람의 관직이 지위에 따라 나열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천관(天官)이라고 부른다.” 【索隱】案: 天文有五官. 官者, 星官也. 星座有尊卑, 若人之官曹列位, 故曰天官. 『史記』卷27, “天官書·第5”

³ 凡天文在圖籍昭昭可知者, 經星常宿中外官凡百一十八名, 積數七百八十三星, …… 『漢書』卷26, “天文志·第6”

⁴ 이 논문에서는 文淵閣 四庫全書의 『개원점경』을 사용하였다.

⁵ 이 논문에서는 京都府立總合資料館 若杉家文書 第82号 『삼가부찬』을 사용하였다.

⁶ 이 논문에서는 京都大學 소장 필사본 『천지서상지』를 사용하였다. 이 필사본의 영인본은 1999년에 권덕영 교수께 얻은 것이다. 京都大學 필사본의 영인본은 또한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 天文卷에도 실려 있다.

⁷ 潘鼐, 『中國恒星觀測史』(上海: 學林出版社, 1989), 94-110; 潘鼐, 『中國恒星觀測史』(上海: 學林出版社, 2009), 128-144, 154-176.

다.⁹ 이 두 “천문지”에서 성관(星官)은 중궁(中宮), 28사(舍), 28사의 바깥에 있는 것 등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진서』 “천문지”와 『수서』 “천문지”는 앞으로 각각 『진지』와 『수지』라고 줄여서 부를 것이다.) 이 둘을 합쳐서 ‘이순풍의 성관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수(隋)와 당초(唐初)의 단원자(丹元子)는 별자리의 모양과 위치 등을 노래한 『보천가(步天歌)』를 지었다. 여기서는 성관을 삼원(三垣)과 28수(宿) 체계로 분류하였다. 『보천가』에서는 삼가의 이름과 중관과 외관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성관을 자미원(紫微垣), 태미원(太微垣), 천시원(天市垣)의 삼원(三垣)과 동북서남의 사방칠수(四方七宿)로 나눈 28수에 분속시켰다. 이 보천가 체제가 송나라의 정초(鄭樵)가 1163년에 지은 『통지(通志)』 “천문략(天文略)”에 채택되었으며, 이것이 『문헌통고(文獻通考)』나 『송사(宋史)』 “천문지” 등으로 이어져 주종(主宗)이 됨으로써 중외관 체계는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8 정관(貞觀) 15년에 또 좌복야(左僕射) 우지녕(于志寧), 태사령(太史令) 이순풍(李淳風), 저작랑(著作郎) 위안인(韋安仁), 부세랑(符璽郎) 이연수(李延壽)로 하여금 함께 『오대사지(五代史志)』를 수찬하라고 명하였다. 무릇 10지(志) 30권을 완성하였다. 현경(顯慶) 원년 5월 기묘일에 태위(太尉)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조당(朝堂)으로 들어가 바치니, 비각(秘閣)에 보관하라고 명하였다. 나중에 또한 『수서(隋書)』에 편입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별도로 수행된 것이나 또한 『오대사지(五代史志)』라고 부르게 되었다. (貞觀)十五年, 又詔左僕射于志寧、太史令李淳風、著作郎韋安仁、符璽郎李延壽同修『五代史志』。凡勒成十志三十卷。顯慶元年五月己卯, 太尉長孫無忌等詣朝堂上進, 詔藏秘閣。後又編第入『隋書』, 其實別行, 亦呼爲『五代史志』。『隋書』卷85, “宋天聖二年隋書刊本原跋”。

9 정관(貞觀) 15년(641)에 태상박사(太常博士)에 제수되었다. 이윽고 태사승(太史丞)으로 옮겨 진서(晉書) 및 오대사(五代史)를 편찬하는데 참여하였으니, 그 천문지(天文志), 율력지(律曆志), 오행지(五行志)는 모두 이순풍(李淳風)이 지은 것이다. (貞觀)十五年, 除太常博士。尋轉太史丞, 預撰『晉書』及『五代史』, 其“天文”、“律曆”、“五行志”皆淳風所作也。『舊唐書』卷79, “列傳·李淳風”

표 1. 중국 성관(星官) 체제의 변천

전한	후한 삼국	육조, 당초	당초	송
『사기』 “천관서”, 『한서』 “천문지”	『삼가성경』 (『개원점경』, 『삼가부찬』, 『천지서상지』, 『돈황사본』 등)	『진지』, 『수지』	『보천가』	『통지』 “천문략”, 『송사』 “천문지”
중궁 동궁창룡 남궁주조 서궁합지 북궁현무	28수 동방 북방 서방 남방 석씨중관 석씨외관 감씨중관 감씨외관 무함중외관	중궁 28사 동방 북방 서방 남방 28수 바깥의 성관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태미궁 자미궁 천시원	삼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28사 동방 북방 서방 남방

이상의 중국 성관 체계의 변천을 [표 1]에 나타냈다.¹⁰ 중국의 별자리는 자궁(紫宮)에 사는 천자(天子)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관료 체제를 그리고 있다. 중국의 관직 제도에는 중앙관과 지방관이 있었는데, 이를 중관(中官)과 외관(外官)이라고 불렀다. 삼가의 성관은 각 학파의 중관과 외관으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28수 및 중·외관 체계’라고 부른 성관 분류 체계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삼가부찬』이나 『개원점경』을 보면, 석신과 감덕의 성관은 중외관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으나 무함의 성관은 중외관으로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천지서상지』에는 무함 성관이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고, 『진지』와 『수지』에는 무함 성관이 중관(中官)과 외관(外官)으로 나뉘어 있다. 오사키 쇼지(大崎正次)는 이순풍의 중외관 분류가 기존의 『삼가성경』 체계를 그대로 따랐다고 보았지만,¹¹ 이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면, 『천지서상지』 및 『진지』와 『수지』의 분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삼가 성관 전체를 중관과 외관으로 명확하게 분해할 수 있을 것이다.

¹⁰ 大崎正次, 『中國の星座の歴史』(東京: 雄山閣, 1987), 205.

¹¹ “晉・隋兩志では中宮・二十八舍に對して, 二十八宿之者とみえるが, 區分意識の上では, 中官・外官と同義とみてよいであろう.” 같은 책, 205.

한편, 이러한 중관과 외관을 구분하는 경계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관과 외관을 나누는 경계에 대해 오사키 쇼지(大崎正次)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하였다.¹²

- ① 적도: 야부우치 기요시(藪内清)¹³와 조지프 니이덤(Joseph Needham)¹⁴의 주장.
- ② 황도
- ③ 28수: 하시모토 게이조(橋本敬造)의 주장.¹⁵
- ④ 주극원: 주극성이 중관이고 출몰성이 외관이라는 아마타 게이지(山田慶兒)의 설.¹⁶

4번 학설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성관이 상당히 많으므로, 오사키 쇼지(大崎正次)는 나머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만 검증해 보았다. 별의 위치와 그에 대한 황도의 위치는 사실상 변하지 않지만, 천구의 적도는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그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그는 『개원점경』의 항성에 대해서는 기원전 70년, 『진지』와 『수지』의 항성에 대해서는 기원후 300년을 기준 시각으로 하여 세차 계산을 수행한 다음, 43개의 대표 성관에 대해, 적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적위 값의 부호, 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황위 값의 부호, 그리고 28수의 경우는 수 거성의 적위에 대한 상대적인 적위값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개원점경』과 『진지』와 『수지』의 중외관은 원칙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도 황도 28수의 남북에 가까운 성좌를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중외관으로 구분한 것이다.”¹⁷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연구는 그 접근 방식이 상당히 과학적이지만, 그 당시의 성관이 현대 별자리의 어느 별에 해당하는지 확정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¹² 같은 책, 206.

¹³ 藪内清, 『中國の天文曆法』(東京: 平凡社, 1969), 58.

¹⁴ J. Needham, “The sciences of the heavens,”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265.

¹⁵ 하시모토 게이조(橋本敬造)는 그의 저서에서 장형(張衡)의 『영헌(靈憲)』을 번역하였는데, 그 한 구절인 ‘中外之官’을 ‘북극(北極)의 주위에 분포하는 중관성(中官星)과 28수부터 남쪽의 외관성(外官星)’이라고 번역하였다. 橋本敬造, “周髀算經·靈憲·渾天儀·天の形体について(『晋書』卷11「天文志」上·天体より)”, 『中國天文學·數學集』科學の名著 第2卷(東京: 朝日出版社, 1980), 357.

¹⁶ 山田慶兒, “空間・分類・カテゴリー”, 『混沌の海へ(中國的思考の構造)』朝日選書207(大阪: 朝日新聞社, 1982), 298.

¹⁷ 大崎正次, 앞의 책, 208.

확인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려 한다. 먼저 『개원점경』, 『삼가부찬』 등을 종합적으로 교감하여 『삼가성경』의 성관을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헌에서는 무함 성관을 중관과 외관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천지서상지』에는 내관의 일부와 외관 전체가 남아 있으므로 무함 성관도 내관과 외관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해 작업의 결과는 『진지』와 『수지』의 중관 및 ‘28수(宿)’의 바깥에 있는 성관과 교차 대조를 함으로써 점검하였다.

그다음으로, 중관과 외관이 확정된 『삼가성경』의 성관을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따로 나타내어 중관과 외관의 경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천상열차분야지도』가 한대(漢代)의 하늘을 담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고,¹⁸ 『삼가성경』 중에서 석씨(石氏)의 성관은

¹⁸ 『천상열차분야지도』에 관한 기존 연구와 쟁점은 구만옥의 논문을 참고하고, 관측 연대의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 요약은 안상현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구만옥, “『천상열차분야지도』 연구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제언”, 『東方學志』 140 (2007), 89-130; 안상현, “『천상열차분야지도』에 나오는 고려시대 피휘와 천문도의 기원”, 『고궁문화』 4 (2011), 125-157.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담겨 있는 성관(星官)은, 그 종류와 각 성관을 구성하는 별의 개수를 여러 시대의 성도 및 성표와 비교해 보면, 당(唐) 이전의 『삼가성경』 계열의 것임이 밝혀져 있다. 송두중, 안영숙, “『천상열차분야지도』 星圖에 새겨진 星座의 이름과 그 뜻”, 『기술보고서 No.03-003-053』 (한국천문연구원, 2003); 송두중, “天象列次分野之圖 星圖 比較 分析”, 『한국의 고천문학 및 천상열차분야지도 워크숍 논문집』 (한국천문연구원, 2006), 25-45. 『삼가성경』이 중국의 삼국시대 말에서 서진(西晉) 초기에 성립된 체계이고, 주로 한(漢)을 거치면서 쌓여온 성관(星官)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또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는 『신당서』 “천문지”에 나오는 개도식(蓋圖式) 성도의 작도법으로 잘 설명된다. Sang-Hyeon Ahn, “Astronomical Characteristics of Cheonsang-yeolcha-bunyajido from the Perspective of Manufacturing Methods,” *J. Astron. Space Sci.* 32:1 (2015), 51-62. 이러한 작도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 성도의 기원에 대해 고찰해 보면, 이 성도에는 한(漢)나라 시대의 북극성인 북극오성(北極五星)의 천추성(天樞星)을 중심에 놓았으며, 그 적도와 천문성 원의 반경비로 추정한 관측지가 통상 고대 중국의 관측지로 여겨져 온 양성(陽城) 또는 등봉(登封)의 위도인 북위 35°이며, 28수의 수도선(宿度線)과 12차(次) 각각의 범위를 수도(宿度), 춘추분점의 위치값 등이 모두 한대(漢代)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한다. 다만, 그동안 『천상열차분야지도』 성도의 관측지를 추정할 때 주요 근거가 되어 온 주극원의 직경은 천문도의 건립된 지역의 위도인 북위 약 38° 정도로 조정되었고, 수도(宿度)의 기준점도 중국의 전통적 기준인 위(危) 6도가 아니라 위수(危宿)의 시작점으로 조정되었고, 황도(黃道)를 적도(赤道)와 똑같은 원으로 그린 점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특이점은 작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관측지나 관측 시점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를 종합하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그려진 내용은 최소한 한대(漢代)의 하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 그 관측 연도가 한(漢)의 건국 무렵과 일치하고 나머지는 전한(前漢)과 후한(後漢) 시기에 몇 차례 이루어진 항성 관측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¹⁹ 다른 두 학파의 성관도 석씨 성관과 같은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면, 『삼가성경』은 한대(漢代)의 하늘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삼가성경』은 같은 시기의 하늘을 담고 있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세차 운동 계산을 통해 적도(赤道)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 없이 『천상열차분야지도』에 중관과 외관을 표시하여 봄으로써 중관과 외관의 경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삼가성경』의 재구성

통상적으로 『삼가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항성 목록은 진탁(陳卓)이 저술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삼가(三家)는 감덕(甘德), 석신(石申), 무함(巫咸)을 말한다. 그러나 『진지』에는 “진(晉)의 무제(武帝) 때에 태사령(太史令) 진탁이 감덕, 석신, 무함 등 삼가(三家)가 저술한 성도(星圖)를 종합하니, 무릇 283관(官) 1,464성(星)이었으며, 이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²⁰라고 하였고, 『수지』에는 “삼국시대에 오(吳)나라의 진탁이 비로소 감씨, 석씨, 무함 등 삼가의 성관을 나열하여 그림과 기록(圖錄)으로 나타냈고, 아울러 점(占)과 찬(讚)을 주석으로 달았는데, 모두 254관(官) 1,283성(星)이 있었으며, 28수 및 보관부좌(輔官附坐) 182성(星)을 합치니, 모두 283관(官) 1,465성(星)이었다.”²¹라고 하였다. 두

¹⁹ 『삼가성경』 중에서 『석씨성경』은 약 120개 정도의 별에 대해 입수도와 거극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여 『석씨성경』의 관측 시기가 약 70개의 별은 한나라 건국 시기이고, 나머지 별들은 그 후 수행된 한나라의 주요 관측 사업을 수행한 시기들과 일치함을 보였다. Sang-Hyeon Ahn, “Revisiting the Epoch of the Earliest Chinese Star Catalog Titled Shi Shi Xing Jing,” *Publ. Astron. Soc. Japan* 72:5 (2020), 87-107.

²⁰ 後武帝時，太史令陳卓總甘、石、巫咸三家所著星圖，大凡二百八十三官，一千四百六十四星，以爲定紀。『晉書』卷11，“天文志·天文經星”

²¹ 三國時，吳太史令陳卓，始列甘氏、石氏、巫咸三家星官，著於圖錄，并注占贊，總有二百五十四官，一千二百八十三星，并二十八宿及輔官附坐一百八十二星，總二百八十三官，一千五百六十五星。『隋書』卷19，“天文志·上” 합산한 별의 개수에 오류가 있다.

기록은 별의 총수(總數)가 하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지』는 삼가가 그린 성도를 진탁이 종합하였다는 말이고, 『수지』는 삼가의 성관을 종합하여 진탁이 성도를 그렸다는 말이라서 두 기록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수서』 “경적지(經籍志)”에는 ‘『석씨성부찬(石氏星簿經贊)』 1권’이 저자명이 없는 채 올라 있고,²² 『구당서』 “경적지”에는 같은 제목의 책을 석신보(石申甫)가 찬술한 것으로 올라 있으며,²³ 『신당서』 “경적지”에는 『구당서』와 같은 기록이 나오지만 석신보(石申甫)를 석신(石申)으로 고쳤다.²⁴ 또한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에도 이 책이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채 올라 있다.²⁵ 한편,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삼가부찬(三家簿贊)』은 『석씨부찬(石氏簿贊)』이라는 표제 아래 『석씨성관부찬』, 『감씨성관부찬』, 『무함씨성관부찬』이 합본되어 있다. 삼가의 부찬이 모두 존재하므로 『삼가성경부찬(三家星經簿贊)』 또는 『삼가부찬(三家簿贊)』으로 부르고 있다.²⁶ 이러한 문헌들은 제목에 부찬(簿贊)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수지』의 설명과 일치하고 있으며, 아마도 진탁의 저술을 모본(母本)으로 하여 발췌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삼가부찬』은 어떤 원전을 축약한 형태이며, 그 원전은 아마도 진탁이 저술한 것(진탁이 지은 그 원전을 『삼가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다)이거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술이었을 것이다. 이 『삼가성경』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잔편이나 발췌본이 『삼가부찬』, 『천지서상지』, 『개원점경』, 『돈황사본』 (P.2512)과 『돈황성도』 (S.3326) 등에 남아 있고, 그것을 원용한 이차 문헌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이 문헌들을 종합하면 『삼가성경』을 재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는 이미 수행되었으며, 예를 들면, 판나이(潘鼐)는 『삼가부찬』의 성관을 『돈황사본』 (P.2512), 『개원점경』, 그리고 『천상열차분야지도』와 비교하여 성관 목록을 작성하였다.²⁷ 또한, 아마시타

22 “『石氏星簿經贊』一卷” 『隋書』 卷34, “經籍志3·子·天文”

23 “『石氏星經簿贊』一卷[石申甫撰]” 『舊唐書』 卷47, “經籍志·下·丙部子錄·天文類”. 石申甫는 石申夫의 오기로 생각된다.

24 “『石氏星經簿贊』一卷[石申]” 『新唐書』 卷59, “藝文志3·丙部子錄·天文類”

25 “『甘、石、巫咸氏星經』一卷. 『石氏星簿贊曆』一卷” 『宋史』 卷206, “藝文志5·子類2·天文類”

26 삼가 성관의 유래에 대한 논의는 마에하라 아야노(前原 あやの)의 논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前原あやの, “星座の三家分類の形成と日本における受容”,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8卷 (2015), 295-311.

27 潘鼐, 앞의 책 (2009), 158-170.

가쓰아키(山下克明)도 『삼가부찬』의 성관을 『돈황사본』(P.2512) 및 『개원점경』과 비교하여 성관 목록을 작성하였다.²⁸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독립적으로 성관 목록을 새로 작성하였으며, 『천지서상지』, 『진지』 및 『수지』와의 비교 검토도 추가되었다.

『삼가성경』을 재구성하는데 사용된 문헌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개원점경』은 당나라 개원연간(713-741)인 720년경에 고타마 싯달타(瞿曇悉達)가 지은 것이다. 이 책의 권60-70에는 28수, 석씨중외관, 감씨중외관, 무함중외관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권106 성도(星圖) 조에는 『개원점경』이 저술될 당시 존재했던 어느 성도와 기존의 『삼가성경』을 비교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삼가성경』의 성관과 성수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 책은 송나라 무렵에 일실되었다가 명(明) 만력(萬曆) 44년(1616년)에 옛 불상의 복장유물로 발견되었고, 이 판본이 나중에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세상에 다시 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²⁹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나라의 『지정조격(至正條格)』에 쿠빌라이칸 때의 금서 목록에 『개원점경』이 보이므로 송나라 때 일실된 것이 아니라 원나라 황실에 은밀하게 간직되어 오다가, 그 내용이 원말명초의 『천원옥력상이부(天元玉曆祥異賦)』에도 삽입되기도 하고,³⁰ 또한 그것이 명(明)의 황실로 전해져 성화각(成化閣)에 비장되기도 했던 또 다른 판본도 있다고 한다.³¹

그 다음으로, 『삼가부찬』은 현재 일본의 교토부립총합자료관(京都府立総合資料館)에 와카스기케문조(若杉家文書) 第82号로 소장되어 있다.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 목록에 따르면, 이 책은 748년 이전에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것은 가마쿠라(鎌倉) 시대인 1235년에 필사한 것이라고 한다.³² 아마시타 가쓰아키(山下克明)는 이 문헌의 서지학적 검토, 내

28 山下克明, “『三家簿讚』の考察”, 『若杉家文書『三家簿讚』の研究』(東京: 大東文化大學東洋研究所, 2004), 188-189.

29 潘鼐, 앞의 책 (1989), 98; 潘鼐, 앞의 책 (2009), 132.

30 佐々木聰, “『天元玉曆祥異賦』の成立過程とその意義について”, 『東方宗教』 122 (2013), 24-45.

31 佐々木聰, “『開元占經』の諸抄本と近世以降の傳來について”, 『日本中國學會報』 64 (2019), 83-97.

32 山下克明, 앞의 논문, 194-197. 일본 나라의 쇼소인에 소장되어 있는 天平 7년(748)에 작성된 문서 『寫章疏目錄』의 기록에 ‘石氏星經簿讚’ 1卷, 石申撰, 『簿讚』 1卷, 陳卓撰이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寛平 2년(890) 전후에 藤原佐世가 찬한 『日本國現在書目』에 ‘簿讚’

용 분석, 일본 전래, 그리고 『개원점경』 및 『돈황사본』(P.2512)과 성관을 비교하는 등 자세하게 연구하였다.³³ 판나이(潘鼐)도 『삼가부찬』에 수록된 성관을 『돈황사본』(P.2512), 『사고전서』본 『개원점경』, 『천상열차분야지도』 등과 비교하여 별목록을 작성하고 원문 교감을 수행하는 등 자세하게 연구하였다.³⁴ 또한, 최근 『삼가부찬』의 성관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마에하라 아야노(前原あやの)가 연구한 것이 있다.³⁵

『개원점경』과 『삼가부찬』은 모두 28수, 석씨중관(石氏中官), 석씨외관(石氏外官), 감씨중관(甘氏中官), 감씨외관(甘氏外官), 무함중외관(巫咸中外官)의 차례로 서술되어 있다. 『삼가부찬』에 수록된 성관 중에서 특이한 것은 종대부(宗大夫)와 삼로(三老)라는 성관이다. 이 두 성관은 『개원점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진지』에는 종대부가 종정(宗正)의 별칭으로 나오며 삼로는 섭제(攝提)의 별칭으로 나온다. 특히, 종대부는 조선 태조 5년 음력 12월에 비석으로 새겨진 『천상열차분야지도』에도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성관이 조선 고유의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종대부는 아마도 원래 『삼가성경』에는 존재하였으나 후대로 소멸하고 그 잔재가 종정에 남은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마찬가지로 삼로도 원래 『삼가성경』에 존재하였으나 후대에 소멸하고 그 잔재가 섭제에 남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다.

『삼가부찬』은 감씨외관 중에서 19개의 성관이 누락 되어 있고,³⁶ 『사고전서』본 『개원점경』에는 석씨중관 중에서 6개가 누락 되어 있다.³⁷ 또한 두 성관 목록은 이른바 보관부좌(輔官附坐)에서도 약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수(尾宿)의 부좌(附坐)인 신궁(神宮)¹이 『개원점경』에는 있으나 『삼가부찬』에는 누락되어 있고, 동함(東咸)과 서함(西咸)이 『삼가부찬』에는 별개의 성관이지만 『개원점경』에는 동서함(東西咸)이란 하나의 성관으로 나온다. 각 성관을 구성하는 별의 개수와 성관의 이름에 쓰인 글자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삼가부찬』은 필사본이기 때문에 이체자와 오탈자(誤脫字)에 주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교감하여 성관 목록을 작성하여 그 목록을 부록에 실었다. 다

3卷, 『石氏星經簿記』 2卷이 나타나고 있다. 潘鼐, 앞의 책 (2009), 154.

33 山下克明, 앞의 논문, 179-199.

34 潘鼐, 앞의 책 (2009), 154-176.

35 前原 あやの, 앞의 논문, 297-301.

36 潘鼐, 앞의 책 (2009), 165.

37 같은 책, 132.

만 이체자나 오타자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³⁸ 중관과 외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추론하는 데에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다른 목록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만을 부록에 주석으로 달고, 그 나머지는 생략하려 한다. 이러한 차이를 빼면 두 문헌은 서로를 보완하여 『삼가성경』의 성관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작성한 성관 목록을 부록에 실었다.

2.2 『진지』 “천문지”와 『수지』 “천문지”

『개원점경』과 『삼가부찬』은 공통적으로, 무함의 성관은 중관과 외관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무함중외관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실어 놓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무함 성관을 중관과 외관으로 분해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자료가 있다. 하나는 이순풍이 지은 『진지』와 『수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천지서상지』이다.

먼저 『진지』와 『수지』는 모두 이순풍(李淳風)이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비슷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자료로 합쳐서 생각할 것이다. 두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성관을 비교해 보면, 먼저 『진지』에는 석씨중관의 두(斗)를 비롯하여 43개의 성관이 누락되어 있다. 부록의 표를 보면, 『진지』와 『수지』의 성관 이름 앞에 *표를 한 것들이 『진지』에는 누락되고 『수지』에만 실려 있는 성관들이다. 특히, 감씨중관과 감씨외관에는 『진지』에 누락된 성관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성(日星)의 경우, 『진지』에는 누락되어 있고 『수지』에는 “房中道一星曰歲守之，陰陽平.”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화서국(中華書局)의 점교본(點校本) 『수지』의 교감기(校勘記)에 따르면 이 문장에 탈자(脫字)가 있다고 한다. 방(房)의 주변에 있는 성관 중에서 누락된 성관은 바로 일성(日星)이므로 『수지』의 탈자는 ‘日’로 볼 수 있다.³⁹ 『삼가부찬』과 『개원점경』에는 “日一星在房中道前.”이라는 비슷한 문구가 있으므로 이런 추정을 지지해 준다.⁴⁰

반면, 『진지』에 실려 있으나 『수지』에는 누락된 성관은 태미원(太微垣) 안의 종인(宗人)과 정수(井宿) 근처의 적수(積水) 둘뿐이다. 부록의 표에는 성관

38 같은 책, 165-170; 大東文化大學東洋研究所 編, 『若杉家文書「三家簿讚」の研究』(東京: 大東文化大學東洋研究所, 2004), 1-178.

39 오사키 쇼지(大崎正次)는 일성(日星)을 단순히 두 사서에 모두 누락되었다고 하였다. 大崎正次, 앞의 책, 200.

40 日一星，在房中道前. 『三家簿讚』“甘氏中官”; 甘氏曰: “日一星在房中道前.” 『開元占經』卷 69, “甘氏中官占·日星占”

이름 앞에 #표를 붙여서 이를 나타냈다. 또한, 부질(鈇鑕) 5성(星)은 『진지』와 『수지』에 공통적으로 누락되었다. 명칭이 비슷한 다른 성관이 있어서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약간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성관의 이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진지』와 『수지』에는 천지(天池)라는 성관이 등장한다. 『송사』 “천문지”와 비교하면 이 성관이 천연(天淵)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 당태종(唐太宗) 때 저술된 『진지』와 『수지』에는 당고조(唐高祖) 이연(李淵)의 이름을 피휘하여 天淵을 天池로 바꾼 것이다.

태미원 안에는 후대에 오제좌(五帝坐)라고 부르는 성관이 있는데,⁴¹ 『삼가부찬』이나 『진지』 및 『수지』에는 모두 황제좌(黃帝坐)와 사제좌(四帝坐)라는 별개의 성관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보관부좌의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림(羽林)과 누벽진(壘壁陣)은 『삼가성경』에는 하나의 성관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진지』 및 『수지』에는 개별 성관으로 되어 있다. 진탁이 보관부좌로 본 것을 이순풍은 별도의 성관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삼가성경』과 비교할 때, 『진지』와 『수지』가 가장 다른 점은, 성관을 중궁, 28수, 28수 바깥의 것으로 나눈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진지』와 『수지』의 중궁이 『삼가성경』의 중궁에 해당하고 『진지』와 『수지』의 ‘28수 바깥의 성관’이 『삼가성경』의 외관에 해당한다.⁴² 그러나, 자세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약간의 흥미로운 예외가 있다. 이것은 뒤에 설명하고자 한다.

2.3 『천지서상지』

무함중외관을 중관과 외관으로 분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자료는 『천지서상지』이다. 이 책의 제6과 제7에는 성관을 사방(四方) 28수, 내관(內官), 외관(外官)으로 나누고 있는데, 내관(內官)을 중관(中官)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함중외관을 중관과 외관으로 분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천지서상지』는 666년에 살수진(薩守眞)이 대왕전하(大王殿下)를 위해 찬술한 일종의 재이(災異) 집성(集成)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이 책의 저자는 신라 사람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⁴³ 여기서는 이 책에 실려 있는 성관

⁴¹ 중앙에 있는 β Leo를 황제좌(黃帝坐)라고 하고 그 곁의 네 별을 사제좌(四帝坐)라고 하며, 총 5성을 오제좌(五帝坐)라고 한다.

⁴² 大崎正次, 앞의 책, 205쪽.

의 체계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천지서상지』 제1의 목록에 따르면, 『천지서상지』 제4-7에는 다음과 같이 성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第4: 1. 東7宿[附見6星], 2. 北7宿[附見2星]

第5: 1. 西7宿[附見3星], 2. 南7宿[附見3星]

第6: 內官98官[附見4官]

第7: 1. 內官46官[附見5官], 2. 外官90官[附見2官]

이 가운데 오로지 제7만 온전하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 목록에 나타난 성관 체제를 보면, 4방 28수, 내관, 외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내관(內官)은 의미상 중앙관인 중관(中官)과 의미가 같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천지서상지』 제7에 실려 있는 자료로부터 외관을 확인한 다음, 그것을 『삼가부찬』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천지서상지』의 외관은 빠짐없이 재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앞에서 말했듯이, 『삼가부찬』의 감덕외관에서 누락된 19개 성관은 『개원점경』에서 보완하였다.

『삼가부찬』에는 석씨외관이 30관 3부좌로 되어 있고,⁴⁴ 감씨외관은 42관이 고 부좌는 없다⁴⁵. 석씨외관의 부좌는 고루(庫樓)에 오주(五柱)와 형(衡)이 부좌로 속해 있고, 또한 우림(羽林)에 누벽진(壘壁陳)이 부좌로 되어 있다. 『삼가부찬』에는 십이국(十二國)을 하나의 성관으로 간주하면 무함중외관은 모두 33관이 있는데,⁴⁶ 이 중에서 『천지서상지』에 외관으로 정의된 것이 16관이 있다.

43 권덕영, “『천지서상지』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일본에 전래된 신라 천문지리서의 일례”, 『백산학보』 52 (1999), 381-402; 水口幹記, “『天地瑞祥志』の基礎的考察”, 『日本古代漢籍受容の史的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5), 177-208; 박승홍, “『천지서상지』 편찬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35:1 (2013), 5-42.; 안상현,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에 쓰인 이두(吏讀)와 편찬자”, 『문헌과 해석』 63 (2013), 145-176.

44 『천지서상지』의 목록을 보면, 28수 부분에는 부견성(附見星)을 적었고, 내외관에는 부견관(附見官)을 적었다. 이것들은 『삼가부찬』의 ‘근속지성(近屬之星)’나 『영대비원(靈臺秘苑)』의 ‘보관부좌(輔官附坐)’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된 성관에 덧붙여 있거나 보좌역을 하는 성관을 부좌(附坐)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들 부좌의 성관은 서로 다른 별목록을 비교 분석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45 참고로 『돈황사본』 (P.2512)와 『천문요록(天文要錄)』 잔초본에도 감씨외관이 42관이 있다. 潘鼐, 앞의 책 (1989), 99.

46 참고로 『돈황사본』(P.2512)에는 무함중외관이 44관이 있다고 하였고, 『천문요록』 잔초본에

그러므로 무함 외관을 포함한 『삼가부찬』의 총 외관은 88관 3부좌가 된다.

이 성관의 개수가 『천지서상지』와 일치하는지 고찰해 보려 한다. 먼저, 『천지서상지』를 보면, 천계(天雞) 2성(星)은, 『삼가부찬』, 『개원점경』, 『진지』/『수지』 등에는 모두 감씨중관 또는 중궁에 속한 성관으로 되어 있지만 『천지서상지』에서는 외관으로 정의되어 있다.⁴⁷ 이것을 고려하면, 『삼가부찬』의 외관에 천계 1관을 추가해야 하므로 외관은 89관 2부좌가 될 것이다.

그다음, 『삼가부찬』이나 『개원점경』에는 우림(羽林) 45성이 누벽진(壘壁陳) 12성과 합쳐져 있으므로 1관 1부좌에 해당한다. 그런데 『천자서상지』에는 이 두 성관이 별도의 외관 성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은 『삼가부찬』에 1관을 더하고 1부좌를 빼줘야 『천지서상지』의 성관수에 부합하게 됨을 뜻한다. 『삼가부찬』에 이것을 고려해 주면, 외관은 총 90관 2부좌가 되어야 하고, 이때 2부좌는 고루에 속한 오주(五住)와 형(衡)이 된다. 즉, 다섯 개의 기둥 각각을 부좌로 보지 않고 합쳐서 1관으로 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천지서상지』 제7의 외관 조를 보면, 『삼가부찬』이나 『개원점경』의 감씨외관 30관 중에서 오로지 옥정(玉井) 1관(官)만이 빠져 있다. 이것은 아마 『천지서상지』의 찬자나 필사자가 실수로 누락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삼가부찬』에서 옥정 1관을 빼면, 『천지서상지』의 외관은 그 총수가 89관 2부좌이고 그 2부좌는 고루(庫樓)에 속한 오주(五住)와 형(衡)이 된다. 『천지서상지』에 수록된 외관과 부좌의 개수를 세어보면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함중외관 33관 중에서 16성이 외관이고 17관이 중관(내관)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천지서상지』 권1의 목록에는 외관이 모두 90관(官)이고 부견(附見) 2관(官)이라고 하였고, 『천지서상지』 권7에는 외관이 총 91관(官) 부견(附見) 2관(官)이라고 하였다. 그 본문에서 외관의 개수를 세어보면 89관(官) 부견(附見) 2관(官)이어서 제목보다 1관이 적다. 이것은 『천지서상지』에는 감씨외관인

는 무함중외관이 33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십이국(十二國)을 12관으로 보았느냐 1관으로 보았느냐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潘鼎, 앞의 책 (1989), 100.

47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천계(天雞)를 찾아보면, 남두(南斗)와 견우(牽牛)를 잇는 띠, 즉 일종의 점이지대에 들어 있어서 중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외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천지서상지』에는 감덕(甘德)의 말을 인용하여, 천계(天雞)가 구국(狗國)의 북쪽에 있으며 구국은 건성(建星)의 동남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치 관계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서 일치한다.

옥정(玉井) 1관(官)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짐작된다. 따라서, 외관의 성관 개수는 목록의 것이 정확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의 계수(計數) 점검 내역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삼가(三家) 성관(星官) 중 외관(外官)의 관(官)과 성(星)의 계수(計數). 석씨외관과 감씨외관은 『삼가부찬』을 기준으로 개수를 세었고, 무함외관은 『천지서상지』에 남아 있는 외관 항목을 고려하였다. 『삼가부찬』과 『천지서상지』에 수록되어 있는 외관의 성관 개수를 비교한 것이다.

서명 (書名)	구분	성관 개수	내역
『삼가부찬』	석씨외관	30관 3부좌	庫樓10(+五柱15+衡4); 羽林45(+壘壁陳12)
	감씨외관	42관 0부좌	
	무함외관	16관 0부좌	『천지서상지』의 외관으로 추정.
	합계	88관 3부좌	무함중외관의 十二國은 1관으로 간주함.
『천지서상지』의 가감	天雞2	+1관	감씨중관인데 『천지서상지』에는 외관으로 정의함.
	羽林45, 壘壁陳12	+1관 -1부좌	『천지서상지』는 별개의 성관으로 취급.
	玉井	-1관	『천지서상지』에 누락됨.
	합계 (실제 計數)	89관 2부좌	2부좌=五柱+衡

『천지서상지』에는 삼가(三家)의 외관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우리는 무함중외관 33관(官) 가운데 16관(官)이 외관이고 17관(官)이 중관(또는 내관)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진지』와 『수지』의 중외관과 교차 대조를 통해서도 검증되는데, 이것은 2.5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2.4 내외관 경계의 확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는 개도식(蓋圖式) 성도이다. 앞의 서론 및 각주 (18)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그 관측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왔지만,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그려진 내용은, 최소한 당(唐) 이전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내용은 서진(西晉) 초기의 진탁(陳卓)이 그 전 시대인 한대(漢代)까지 축적된 성관(星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삼가성경』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세차 운동 계산을 통해 그 적도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단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중관(또는 내관)과 외관을 표시함으로써 『삼가부찬』, 『천지서상지』,

『개원점경』 등에서 재구성한 『삼가성경』의 중관과 외관의 경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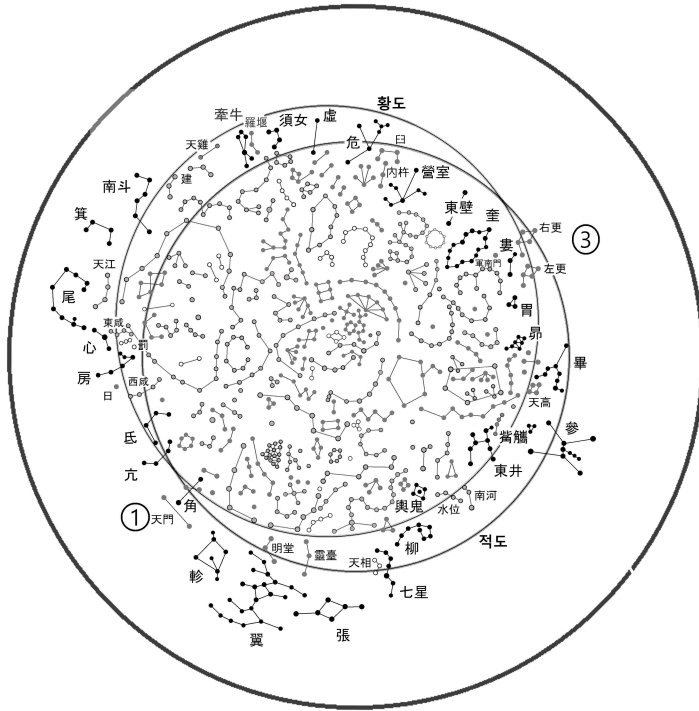


그림 1. 중관(中官)의 별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그려진 성관의 위치에 따라 『삼가성경』에서 써씨중관(회색 원), 감씨중관(회색 점), 무함중관(흰 원)을 표시하고, 28수에 속하는 별은 검은 점으로 표시하고 이름도 함께 적어 넣었다. 중관들은 28수를 경계로 분포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각(角) 아래에 위치한 천문(天門)과 루(婁) 아래에 위치한 좌경(左更)과 우경(右更)은 중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28수의 바깥에 있어서 외관으로 취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각각 ①과 ③으로 표시하였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삼가성경』의 중관 또는 『천지서상지』의 내관을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28수는 짙은 점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표시하였다. 만일 황도(黃道)가 중외관의 경계였다면, 남두(南斗)부터 수녀(須女)까지에서 건성(建星), 천계(天雞), 나언(羅堰)은 황도 북쪽에 있으므로 중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반대쪽인 필수(畢宿)부터 진수(軫宿) 사이에 있는 천고(天高), 남하(南河), 천상(天相), 영대(靈臺), 명당(明堂)은 황도 바깥에 있어서

중관이라고 할 수 없다. 각수(角宿) 아래의 천문(天門)과 미수(尾宿) 위의 천강(天江)은 황도 바깥에 있다.

만일 적도(赤道)가 중외관의 경계였다면, 필수(畢宿)부터 진수(軫宿) 사이의 성관은 중관이 되지만, 그 반대편인 저수(氐宿)부터 위수(危宿) 사이에 있는 많은 성관들이 중관이 될 수 없다. 만일 28수가 중외관의 경계였다면, 적도와 황도보다 바깥에 있던 천강(天江)까지도 중관이 되며, 천문(天門)·좌경(左更)·우경(右更)을 제외한 모든 성관이 중관이 되는 것이 설명된다. 이 예외적인 성관 중에서 천문(天門)은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중관이 될 수 없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만일 28수 각각의 수거성(宿距星)이 중관과 외관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중관임이 설명되지 않는 성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성(日星)은 방수(房宿)의 수거성보다 남쪽에 있고, 천계(天雞)는 견우(牽牛)의 수거성보다 남쪽에 있고, 내저(內柵)와 구(臼)는 영실(營室)의 수거성보다 남쪽에 있고, 수위(水位)나 남하(南河)는 귀수(鬼宿)보다 남쪽에 있다. 그러므로 이 성관들은 외관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관으로 분류되었다. 이것은 28수의 수거성이 중외관의 구분 기준이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게 한다. 이러한 의심은 다음에서 살펴볼 외관에 대한 분석에서 더욱 강화된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삼가성경』의 외관만 그려본 것이 [그림 2]이다. 여기서도 중관과 외관의 경계가 황도나 백도라면, 정수(井宿) 근처의 수부(水府)와 사독(四瀆), 삼수(參宿) 근처의 삼기(參旗), 묘수(昴宿) 아래의 천륜(天廩) 등이나, 동벽(東壁)에서 수녀(須女) 사이에 있는 여러 외관이 중관이 되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28수가 중외관의 경계라면, 이러한 예외적인 성관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28수가 중관과 외관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두(南斗) 근처의 천악(天觜)은 기수(箕宿)의 북쪽에 있으므로 중관이여야 하는데 외관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일부 외관들이 28수의 각각의 북쪽 끝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28수가 이루는 띠를 넘어 중관만의 영역까지는 침범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의 [그림 1]에서 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관들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즉, 28수를 구성하는 모든 별이 차지하는 영역을 이으면 넓은 띠가 되는데, 이 띠에는 중관과 외관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띠를 일종의 ‘중외관의 점이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28수의 각 수거성(宿距星)의 적위를 기준으로 중외관을 구분한다는 오사키 쇼지(大崎正次)의 기준은 너무 엄격

한 것이었으며, 28수가 만드는 점이대가 중외관을 구분하는 경계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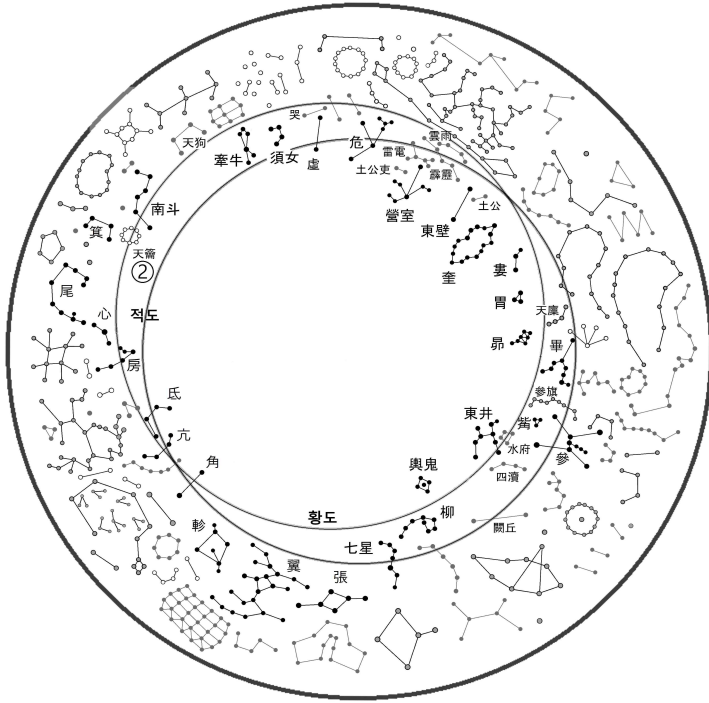


그림 2. 외관(外官)의 별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그려진 성관의 위치에 따라 『삼가성경』의 석씨 외관(회색 원), 감씨외관(회색 점), 무함외관(흰 원)을 표시하고, 28수에 속하는 별은 검은 점으로 표시하고 이름도 함께 적어 넣었다. 외관들은 28수 각각의 안쪽(북쪽) 끝 별보다 바깥쪽(남쪽)에만 분포하고 있다. 남두(南斗) 근처에 ②로 표시한 천악(天籥)은 『천지서상지』에는 외관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28수의 하나인 기수(箕宿)보다 안쪽(북쪽)에 위치한다. 『진서』와 『수서』의 “천문지”에는 이 별이 중궁(中宮)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두 그림에서 살펴보았을 때, 28수가 이루는 띠가 중외관의 점이 경계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외적인 성관이 존재한다. 여기서 원문자로 나타낸 번호는 [그림 1]과 [그림 2]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성관들은 다음에 살펴볼 『진지』와 『수지』의 중외관 구분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점을 함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 ① 천문(天門)은 감씨중관인데 각수(角宿)의 남쪽에 있다.
- ② 천약(天籥)은 무함외관인데 기수(箕宿)와 두수(斗宿)의 북쪽에 있다.
- ③ 좌경(左更)과 우경(右更)은 감씨중관인데 루수(婁宿)의 남쪽에 있다.

2.5 『진서』 “천문지”와 『수서』 “천문지”의 중외관

『삼가성경』의 중관과 외관을 『진지』와 『수지』의 중관 및 ‘28수 바깥에 있는 성관’과 비교해 보았다. 이 두 별목록은 부록에 실어 놓았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비교 결과, 『진지』와 『수지』의 ‘28수 바깥에 있는 성관’을 『삼가성경』의 외관과 같은 개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의 여덟 성관을 예외로 한 나머지 거의 모든 성관은 중관은 중관끼리 외관은 외관끼리 일치한다.

표 3. 28수 『삼가성경』의 중외관이 과 이순풍의 『진서』 및 『수서』 “천문지”의 것과 어긋나는 경우

번호	성관	『삼가성경』/ 『천지서상지』	『진지』/ 『수지』	평가
1	나언(羅堰)	감씨중관	외관	점이대
2	천문(天門)	감씨중관	외관	28수 경계에 충실
3	좌경(左更)	감씨중관	외관	28수 경계에 충실
4	우경(右更)	감씨중관	외관	28수 경계에 충실
5	구국(狗國)	감씨외관	중관	이순풍의 오류
6	궐구(闕丘)	감씨외관	중관	이순풍의 오류
7	천복(天福)	무함외관	중관	점이대
8	천약(天籥)	무함외관	중관	28수 경계에 충실

이 예외 성관 중에서 나언(羅堰)과 천복(天福)은 ‘28수가 이루는 때’ 즉 점이대 속에 들어 있으므로 중관으로 볼 수도 있고 외관으로 볼 수도 있다. 천문(天門), 좌경(左更), 우경(右更), 천약(天籥)은,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삼가성경』과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비교에서는 중관과 외관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인데, 이순풍은 실제 그 성관들의 실제 위치에 맞춰서 『삼가성경』의 중외관 정의를 수정한 셈이다.

반면, 구국(狗國)과 궐구(闕丘)는 이순풍의 『진지』와 『수지』가 『삼가성경』을 수정함으로써 오히려 중외관의 착종을 일으킨 경우다. 그러나 이 두 성관은 어두운 별로 이루어졌으므로 시대에 따라 다른 별로 동정되었을 수도 있고, 더욱이 이 두 성관은 황도나 28수에 인접한 성관들이므로, 이순풍이 본 성도에서는 이 성관들이 28수의 점이대 이북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진지』와 『수지』를 편찬한 이순풍이 대부분의 성관은 그 중외관 여부를 『삼가성경』을 그대로 따랐지만 일부 성관의 중외관 여부는 『삼가성경』과 다르게 고쳤다는 점이다. 더욱이 기존의 『삼가성경』에서 중외관에 착종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성관들의 중외관을 이순풍이 28수를 경계 기준으로 삼아 새로 정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순풍이 28수를 중외관의 경계로 하여 중관과 외관을 나눈다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지킨 셈이다.

이러한 면모는 『천지서상지』의 경우 내외관의 착종을 일으킨 천계(天雞)나 누락된 옥정(玉井)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즉,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천계의 위치를 보면, 남두(南斗)와 견우(牽牛) 사이의 비교적 넓은 간격을 이루는 부분에 위치하며, 두 수(宿)가 이루는 띠의 남쪽 끝에 놓여 있다. 마찬가지로 옥정(玉井)은 삼수(參宿)의 남쪽 별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므로 28수의 띠의 남쪽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관인지 외관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라서 『천지서상지』의 찬자가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3세기 진탁(陳卓)이 지은 『삼가성경』의 중관과 외관은 적도, 황도, 28수 가운데 무엇을 경계로 구분하였는지 검증해 보았다. 우리는 먼저 『개원점경』과 『삼가부찬』 등의 항성 목록을 서로 보완하여 『삼가성경』의 성관을 재구성하였다. 이 항성 목록들에 들어 있는 무함 성관들은 중관인지 외관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666년 저술된 『천지서상지』의 항성 목록에는 무함 외관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이 정보를 이용하여 무함 성관을 중관과 외관으로 분해할 수 있었다.

한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 그려진 성관은 그 모양이나 위치나 별개수 등이 『삼가성경』과 일치하고, 또한 북극성, 적도와 천문성원, 수도선, 12차(次)의 경계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적어도 당(唐) 이전이며 구체적으로 한대(漢代)로 파악되므로 『삼가성경』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관에 『삼가성경』의 중관과 외관을 표시한 다음, 『삼가성경』이 무엇을 경계로 중관과 외관을 구분한 것인지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삼가성경』의 중관과 외관은 28수를 경계로 나눈 것이며, 그 경계는 수거성의 위치가 아니라 28수 성관이 이루는 띠를 일종의 중외관의 점이대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이순풍이 저술한 『진지』와 『수지』의 항성 목록은 중궁과 28수와 28수 바깥의 성관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을 『삼가성경』 및 『천지서상지』와 대조해본 결과, 『진지』와 『수지』의 중궁 성관은 『삼가성경』의 중관과 대부분 일치하고, 그 28수 바깥의 성관은 『삼가성경』의 외관과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일부 성관의 사례가 무척 흥미로웠다. 이들 예외적 성관의 상당수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성도에서 보았을 때, 28수를 기준으로 『삼가성경』의 성관을 중관과 외관으로 구분한다는 원칙에서 뚜렷하게 벗어나는 것들이었다. 즉, 이순풍은 『삼가성경』을 수정하면서까지 28수를 기준으로 중외관을 나눈다는 원칙을 더욱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삼가성경』을 수록한 항성 목록들은 공통적으로 28수를 맨 앞에 따로 나열하였다. 또한, 『진지』와 『수지』의 성관을 ‘28수 바깥의 성관’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서술 형태는 28수가 중관도 외관도 아닌 별개의 집단으로 취급되었으며, 나아가 ‘중관과 내관의 경계는 28수’임을 암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각을 좀더 확실하게 입증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의 분야설(分野說)과 성관 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28수는 제후(諸侯)에 해당하므로 제후가 거느린 관리인 외관(外官)이 적어도 제후보다도 더 천제(天帝)에 가까운 위치에 놓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투고: 2021년 11월 22일, 심사 완료: 2021년 12월 19일, 게재 확정: 2021년 12월 28일)

부록. 『삼가성경』, 『천지서상지』, 『진서』 “천문지”/『수서』 “천문지” 별목록

성관명 앞에 +표시는 부좌(附坐)를 뜻하고, ×표시는 부좌가 아님을 뜻한다. 성관명 다음의 숫자는 구성 별의 개수이다.

28수		
『삼가성경』		『진 · 수지』
東	角 ₂	角 ₂
東	亢 ₄	亢 ₄
東	氐 ₄	氐 ₄
東	房 ₄	房 ₄
	+鉤鈴 ₂	+鉤鈴 ₂
東	心 ₃	心 ₃
東	尾 ₉	尾 ₉
	×神宮*	+神宮 ₁
東	箕 ₄	箕 ₄
7관 1부좌 32성		7관 2부좌 33성
北	斗 ₆	南斗 ₆
北	牽牛 ₆	牽牛 ₆
北	須女 ₄	須女 ₄
北	虛 ₂	虛 ₂
北	危 ₃	危 ₃
	+墳墓 ₄	+墳墓 ₄
北	營室 ₂	營室 ₂
	+離宮 ₆	+離宮 ₆
北	東壁 ₂	東壁 ₂
7관 2부좌 35성		7관 2부좌 35성
西	奎 ₁₆	奎 ₁₆
西	婁 ₃	婁 ₃
西	胃 ₃	胃 ₃
西	昂 ₇	昂 ₇
西	畢 ₈	畢 ₈
	+附耳 ₁	+附耳 ₁
西	觜觿 ₃	觜觿 ₃
西	參 ₁₀	參 ₁₀
	×伐 ₃ [†]	×伐 ₃

7관 1부좌 51성		7관 2부좌 51성	
南	東井8		東井8
	+越1		+鉞1
南	輿鬼5		輿鬼5
	×積尸氣1		×積尸氣1
南	柳7		柳8 [†]
南	星7		七星7
南	張6		張6
南	翼22		翼22
南	軫4		軫4
	+長沙1		+轄2
	+轄2		+長沙1
7관 3부좌 63성		7관 3부좌 64성	
총 181성		총 183성	

* 神宮₁은 『삼가부찬』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개원점경』 권6o, “東方七宿”) 石氏曰:“尾九星, …… 第3星旁1星, 相去1寸, 名神宮. …”; (『개원점경』 권1o6, “星圖”) 尾九星, 神宮一星, 十八度, 距本第二星, 去極一百二十四度, 燕分.) [『개원점경』 권1o6의 서술 형식이 부좌(附坐)를 표현하는 것이다.]

† 伐₃은 參에 부속되어 보이지만, 부좌가 되려면 參₇성과 伐₃성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參₁₀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伐₃은 부좌가 아니다.

‡ 『삼가부찬』과 『개원점경』에는 柳가 7성으로 되어 있지만, 『진지』/『수지』에는 8성으로 되어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8성이다. 실제 하늘에는 비교적 밝은 별이 8개가 있다.

석씨중관					
『삼가성경』		『서상지』		『진·수지』	
1	攝提6			中	攝提6
2	大角1			中	大角1
3	梗河3			中	梗河3
4	招搖1			中	招搖1
5	玄戈1			中	玄戈1 [*]
6	天槍3			中	天槍3

7	天枰5		中	天枰5
8	女牀3		中	女牀3
9	七公7		中	七公7
10	貫索9		中	貫索9
11	天紀9		中	天紀9
12	織女3		中	織女3
13	天市垣22		中	天市垣22
14	帝坐1		中	帝坐1
15	候1		中	候1
16	宦者4		中	宦者4
17	斗5		中	*斗5
18	宗正2		中	宗正2
19	宗人4		中	#宗人4
20	宗星2		中	宗星2
21	宗大夫4 [†]			
22	東咸4 [‡]		中	東咸4
23	西咸4		中	西咸4
24	天江4		中	天江4
25	建星6		中	建星6
26	天弁9		中	天弁9
27	河鼓 鼓祺12 [#]		中	河鼓3旗9
28	離珠5		中	離珠5
29	瓠瓜5		中	*瓠瓜5
30	天津9		中	天津9
31	騰蛇22		中	騰蛇22
32	王良5		中	王良5
33	閣道6		中	閣道6
34	附路1		中	傳路1
35	天將軍11		中	天將軍12
36	大陵8		中	太陵8
37	天船9		中	天船9
38	卷舌6		中	卷舌6
39	五車		中	五車5

	三柱 ¹⁴				三柱 ⁹
40	天關 ¹	내	天關 ¹	中	天關 ¹
41	南河北河 ⁶	내	南北河 ⁶	中	南河 ³ ^Δ
				中	北河 ³
42	五諸侯 ⁵	내	五諸侯 ⁵	中	五諸侯 ⁵
43	積水 ¹	내	積水 ¹	中	#積水 ¹
44	積薪 ¹	내	積薪 ¹	中	積薪 ¹
45	水位 ⁴	내	水位 ⁴	中	水位 ⁴
46	軒轅 ¹⁷	내	軒轅 ¹⁷	中	軒轅 ¹⁷
47	少微 ⁴	내	小微 ⁴	中	少微 ⁴
48	太微 ¹⁰	내	太微 ¹⁰	中	太微 ⁸
49	*黃帝坐 ¹	내	五帝 ⁵	中	黃帝坐 ¹ ◇
50	*四帝坐 ⁴			中	四帝坐 ⁴
51	*屏 ⁴	내	屏 ⁴	中	屏 ⁴
52	*郎位 ¹⁵	내	郎位 ¹⁵	中	郎位 ¹⁵
53	*郎將 ¹	내	郎將 ¹	中	郎將 ¹
54	*常陳 ⁷	내	常陣 ⁷	中	常陳 ⁷
55	三台 ⁶	내	三台	中	三台 ⁶
56	相 ¹	내	相 ¹	中	相 ¹
57	太陽守 ¹	내	太陽守 ¹	中	太陽守 ¹
58	天牢 ⁶	내	天牢 ⁶	中	天牢 ⁶
59	文昌 ⁷ [↓]	내	文昌 ⁶	中	文昌 ⁶
60	北斗 ⁷ +輔 ¹			中	北斗 ⁷ [↑]
				中	輔星
61	紫微垣 ¹⁵			中	紫微垣 ¹⁵
62	北極 ⁵ +鉤陳 ⁶ [↑]			中	北極 ⁵ +鉤陳 ⁶
63	天一 ¹			中	天一 ¹
64	太一 ¹			中	太一 ¹

[주의] 『삼가성경』의 #49黃帝坐부터 #54常陳까지는 『개원점경』에는 누락되었고, 『삼가부찬』과 『천지서상지』에는 존재하는 성관이다. 또한, 『진지』/『수지』의 항에서 성관명 앞에 *를 덧붙인 것은 『수지』에만 나오고 『진지』에는 누락된 것이고, #를 덧붙인 성관은 『진지』에만 나오고 『수지』에는 누락된 것이다.

* (『진지』)[中宮]玄戈1星; (『수지』)[中宮]玄戈2星.

† (『삼가부찬』)[石中]宗大夫4星在宗人東北. 『삼가부찬』과 『천상열차분야지도』에만 나옴. (『진지』, 『수지』) 宗正二星, 在帝坐東南, 宗大夫也.

‡ (『삼가부찬』)[石中]東咸4星在房東北. 西咸4星在房西北.; (『개원점경』)[石中]東西咸占. 石氏曰:“東咸4星, 在房東北. 西咸4星, 在房北.”; (『진지』, 『수지』)[中宮]東咸西咸, 各4星.

(『삼가부찬』)[石中]河鼓鼓旗12星, 在牽牛北.; (『개원점경』)[石中]河鼓星占. 石氏曰:“河鼓3星, 旗9星, 在牽牛北.”; (『진지』, 『수지』)河鼓3星, 旗9星, 在牽牛北.

|| (『삼가부찬』)[石中]五車三柱14星, 在畢東北.; (『개원점경』)[石中]五車星占. 石氏曰:“五車5星, 三柱9星, 凡十四星, 在畢東北.”; (『진지』, 『수지』)五車五星, 三柱9星, 在畢北.

△ (『삼가부찬』)[石中]南河北河6星夾東井.; (『천지서상지』)[內官]南北河. 石氏曰:“南河北河, 各三星, 夾東井.”; (『개원점경』)[石中]南北河成占. 石氏曰:“南河北河6星; 夾東井.”; (『진지』, 『수지』)南河北河各3星, 夾東井.

◇ (『삼가부찬』)[石中]黃帝坐1星在太微中. 四帝坐4星夾黃帝坐.; (『천지서상지』)[內官]五帝. 石氏曰:“五星在太微中.”; (『개원점경』 권107)黃帝座, 舊4星, 去黃帝座近遠並相侶, 今有近有遠不等. 黃帝座, 1星, 在太微中. 四帝, 4星, 夾黃帝座.; (『진지』)黃帝坐, …… . 四帝坐 …….; (『수지』)黃帝坐1星, … 四帝坐4星, ….

↓ (『삼가부찬』)[石中]文昌7星在北斗魁前.; (『천지서상지』)[內官]文昌. 石氏曰“6星在北斗魁前.”; (『개원점경』)[石中]文昌星占. 石氏曰:“文昌6星.” (권107)文昌, 古今同, 6星, 北斗魁前.;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7星이다.

↑ (『삼가부찬』)[石中]北斗7星, 輔1星, 在太微北.; (『개원점경』)[石中]北斗星占. 石氏曰:“北斗7星, 輔1星, 在太微北.”; (『진지』)北斗7星, … 輔星, …; (『수지』)北斗7星, 輔1星, ….

↑ (『삼가부찬』)[石中]北極5星鉤陳6星在紫宮中.; (『개원점경』)北極鉤陳占. 石氏曰:“北極5星, 鉤陳6星, 皆在紫微宮中.”; (『진지』, 『수지』)北極5星, 鉤陳6星, 皆在紫宮中.

감싸증관				
『삼가성경』		『서상지』		『진·수지』
1	天皇太帝1			中 天皇太帝1
2	四輔4			中 四輔4
3	華蓋7柄9			中 華蓋9 [*]
				中 杠9

4	五帝內坐 ₅			中	五帝內坐 ₅
5	六甲 ₆			中	六甲 ₆
6	天柱 ₅			中	天柱 ₅
7	柱下史 ₁			中	柱下史 ₁
8	女史 ₁			中	女史 ₁
9	尙書 ₅			中	尙書 ₅
10	陰德 ₂			中	陰德陽德 ₂
11	天床 ₆			中	天牀 ₆
12	天理 ₄			中	天理 ₄
13	內廚 ₂	내	內廚 ₂	中	內廚 ₂
14	內階 ₆	내	內階 ₆	中	內階 ₆
15	天廚 ₆			中	天廚 ₆
16	策 ₁			中	策 ₁
17	傳舍 ₉			中	傳舍 ₉
18	造父 ₅			中	造父 ₅
19	車府 ₇			中	*車府 ₇
20	人星 ₅			中	*人星 ₅
21	內杵 ₃			中	*內杵 ₃ [†]
22	臼 ₄			中	*杵臼 ₄ [‡]
23	扶筐 ₇			中	扶筐 ₇
24	司命 ₂			中	*司命 ₂
25	司祿 ₂			中	*司祿 ₂
26	司危 ₂			中	*司危 ₂
27	司非 ₂			中	*司非 ₂
28	敗瓜 ₅			中	*敗瓜 ₅
29	河鼓左旗 ₉			中	左旗 ₉
30	[天]鷄 ₂	외	天雞 ₂	中	天雞 ₂ [#]
31	羅堰 ₃			外	羅堰 ₉
32	市樓 ₆			中	*市樓 ₆
33	日 ₁			中	*日 ₁ ^Δ
34	斛 ₄			中	*天斛 ₄
35	天乳 ₁			中	*天乳 ₁
36	亢池 ₆			中	*亢池 ₆

37	漸臺4			中	漸臺4
38	輦道6 ◇			中	輦道5
39	三公3 ↓			中	三公3
40	周鼎3			中	周鼎3
41	帝席3			中	帝席3
42	天田2			中	*天田2
43	天門2			外	天門2 ↓
44	平道2			中	平道2
45	進賢1			中	進賢1
46	謁者1	내	謁者1	中	謁者1
47	三公內坐3	내	三公3	中	三公內坐3
48	九卿內坐3	내	九卿3	中	九卿內坐3
49	內五諸侯5	내	諸侯5	中	內五諸侯5
50	三老3 ↑				
51	太子1	내	太子1	中	太子1
52	幸臣1	내	幸臣1	中	幸臣1
53	從官1	내	從官1	中	從官1
54	明堂3	내	明堂3	中	明堂3
55	靈臺3	내	靈臺3	中	靈臺3
56	勢4	내	勢4	中	勢4
57	內平4	내	內平4	中	內平4
58	燿4	내	權4	中	燿4
59	酒旗3	내	酒旗3	中	酒旗3
60	天尊3	내	天樽3	中	天樽3
61	諸王6	내	諸王6	中	諸王6
62	司怪4	내	司怪4	中	司怪4
63	坐旗9	내	坐旗9	中	坐旗9
64	天高4	내	天高4	中	天高4
65	厲石4	내	厲石5	中	*厲石5
66	八穀8	내	八穀8	中	八穀8
67	天譴1			中	天譴1
68	積水1			中	積水1
69	積尸1			中	積尸1

70	左更 ₅			外	*左更 ₅
71	右更 ₅			外	*右更 ₅
72	軍南門 ₁			中	軍南門 ₁
73	天潢 ₅			中	天潢 ₅
74	咸池 ₃			中	咸池 ₃
75	月 ₁			中	*月 ₁
76	天街 ₂			中	天街 ₂
77	天河 ₁			中	天河 ₁

* (『삼가부찬』)[甘中]華蓋₇星, 柄₉星, 凡₁₆星, 在天帝上, 一曰在北.; (『개원점경』)[甘中]華蓋星占. 甘氏曰:“華蓋₇星, 杠₉星, 凡₁₆星, 在大帝上.”; (『진지』, 『수지』)[中宮]太帝上九星曰華蓋.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華蓋라고 되어 있고 별의 개수를 세어 보면 7개이고, 杠이라고 되어 있고 별의 개수를 세어보면 9개이다.

+ 『수지』에 나오고 『진지』에는 나오지 않으며,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는 內杵로 되어 있음. 『수지』의 析은 杵의 오자(誤字)로 생각됨.

≡ 『수지』에 나오고 『진지』에는 나오지 않으며,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는 白로 되어 있음.

(『삼가부찬』)[甘中]雞₂星在狗國北.; (『개원점경』)[甘中]天雞星占. 甘氏曰:“天雞₂星在狗國北.”; (『진지』, 『수지』)[中宮]狗國北₂星曰天雞.

||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3星.

△ (『삼가부찬』)[甘中]日₁星在房中道前.; (『개원점경』)[甘中]日星占. 甘氏曰:“日₁星, 在房中道前.”; (『수지』)房中道一星曰(日). 歲守之, 陰陽平.; (『진지』)없음.

◇ (『삼가부찬』)[甘中]輦道₆星在織女西足.; (『개원점경』)[甘中]輦道星占. 甘氏曰:“輦道₅星, 屬織女西足.”; (『진지』, 『수지』)西之五星曰輦道.; 『천상열차분야지도』 6星.

↓ (『삼가부찬』)[甘中]三公₃星在斗杓東南.; (『개원점경』)[甘中]三公星占. 甘氏曰:“三公₃星, 在北斗柄南.”; (『진지』, 『수지』)杓南₃星及魁第₁星, 皆曰三公.

↑ (『삼가부찬』)[甘中]天門₂星在左角南近之.; (『개원점경』)[甘中]天門星占. 甘氏曰:“天門₂星, 在左角南.”; (『진지』, 『수지』)[外官]天門₂星, 在平星北.

↑ (『개원점경』)[石中]攝提占. 石氏曰:“攝提₆星, 夾大角, ……; 一名三老, …….”; 三老是 攝提의 별명. 『삼가부찬』에만 있고 『개원점경』에는 없음.

석씨외관					
『삼가성경』		『서상지』		『진·수지』	
1	庫樓 ¹⁰ +五柱 ¹⁵ +衡 ⁴	외	庫樓[樓 ¹⁰ 柱 ¹⁵ 衡 ⁴]	外	庫樓 ¹⁰ +柱 ¹⁵ +衡 ⁴
2	南門 ²	외	南門 ²	外	南門 ²
3	平星 ²	외	平星 ²	外	平星 ²
4	騎官 ²⁷	외	騎官 ²⁷	外	騎官 ²⁷
5	積卒 ¹²	외	積卒 ¹²	外	積卒 ¹²
6	龜 ⁵	외	龜 ⁵	外	龜 ⁵
7	傳說 ¹	외	傳說 ¹	外	傳說 ¹
8	魚 ¹	외	魚 ¹	外	魚 ¹
9	杵 ³	외	杵 ³	外	杵 ³
10	鰐 ¹⁴	외	鼈 ¹⁴	外	鼈 ¹⁴
11	九坎 ⁹	외	九坎 ⁹	外	九坎 ⁹
12	敗臼 ⁴	외	敗臼 ⁴	外	*敗臼 ⁴
13	羽林 ⁴⁵ 壘壁陳 ¹² *	외	羽林 ⁴⁵	外	羽林 ⁴⁵
		외	壘壁陳 ¹²	外	壘壁陣 ¹²
14	北落師門 ¹	외	北落師門 ¹	外	北落師門 ¹
15	土司空 ¹ †	외	土司空 ¹ †	外	*土司空 ¹ †
16	天倉 ⁶	외	天倉 ⁶	外	天倉 ⁶
17	天困 ¹³	외	天困 ¹³	外	天困 ¹³
18	天廩 ⁴	외	天廩 ⁴	外	天廩 ⁴
19	天苑 ¹⁶	외	天苑 ¹⁶	外	天苑 ¹⁶
20	參旗 ⁹	외	參旗 ⁹	外	參旗 ⁹
21	玉井 ⁴			外	玉井 ⁴
22	屏 ²	외	屏 ²	外	*屏 ²
23	厠 ⁴	외	厠 ⁴	外	*天厠 ⁴
24	[天]矢 ¹	외	天矢 ¹	外	*天矢 ¹
25	軍市 ¹³	외	軍市 ¹³	外	軍市 ¹³
26	野鷄 ¹	외	野鷄 ¹	外	野雞 ¹
27	狼 ¹	외	狼 ¹	外	狼 ¹
28	弧 ⁹	외	弧 ⁹	外	弧 ⁹
29	老人 ¹	외	老人 ¹	外	老人 ¹
30	稷 ⁵	외	稷 ⁵	外	稷 ⁵

* (『삼가부찬』)[石外]羽林45, 壘壁陣12, 凡57星, 在營室南.; (『개원점경』)[石外]羽林星占. 石氏曰:“羽林45星, 壘壁陣12星, 凡57星, 在營室南.”; (『천지서상지』)[外官]羽林. 石氏曰:“45星在室南.”; (『진지』, 『수지』)[外官]羽林45星, 在營室南, …… 壘壁陣12星, 在羽林北, ….

† (『삼가부찬』)[石外]土司空1星在奎南.; (『천지서상지』)[外官]司空. 石氏曰:“司空1星, 在奎南.”; (『개원점경』)[石外]土司空星占. 石氏曰:“土司空1星, 在奎南.”; (『수지』)天囷南1星曰土司空.; (『진지』)없음.

감씨외관					
『삼가부찬』		『서상지』		『진·수지』	
1	靑丘7	외	靑丘7	外	靑丘7
2	折威7	외	折威7	外	折威7
3	陣車3	외	陣車3	外	陣車3
4	騎陣將軍1	외	騎陣1	外	騎陣將軍1
5	車騎3	외	車騎3	外	車騎3
6	糠1	외	糠1	外	糠1
7	農丈人1	외	農丈人1	外	農丈人1
8	狗2	외	狗2	外	狗2
9	狗國4	외	狗國4	中	狗國4*
10	天田9	외	天田9	外	天田9
11	哭2	외	哭2	外	哭2
12	泣2	외	泣2	外	泣2
13	盖屋2	외	蓋屋2	外	蓋屋2
14	八魁9	외	八魁9	外	八魁9
15	雷電6	외	雷電6	外	*雷電6
16	雲雨4	외	雲雨4	外	*雲雨4
17	霹靂5	외	霹靂5	外	*霹靂5
18	土公2 [†]	외	土功2	外	*土公2
19	土公吏2 [†]	외	土功吏2	外	*土功吏2
20	鉄鎚5 [#]	외	斧質5		
21	天囷7	외	天囷7	外	*天囷7
22	外屏7	외	外屏7	外	外屏7
23	天庾3	외	天庾3	外	天庾4
24	芻藁6	외	芻藁6	外	*芻藁6

25	天園 ₁₃	외	天園 ₁₄	外	天園 ₁₃
26	九州殊口 ₉	외	九州口 ₉	外	九州殊口 ₉
27	天節 ₈	외	天節 ₈	外	天節 ₈
28	九游 ₉	외	九游 ₉	外	九游 ₉
29	軍井 ₄	외	軍井 ₄	外	軍井 ₄
30	水府 ₄	외	水府 ₄	外	水府 ₄
31	四瀆 ₄	외	四瀆 ₄	外	四瀆 ₄
32	闕丘 ₂	외	闕丘 ₂	中	闕丘 ₃ ^A
33	天狗 ₇	외	天狗 ₇	外	天狗 ₇
34	丈人 ₂	외	丈人 ₂	外	丈人 ₂
35	子 ₂	외	子 ₂	外	子 ₂
36	孫 ₂	외	孫 ₂	外	孫 ₂
37	天社 ₆	외	天社 ₆	外	天社 ₆
38	天紀 ₁	외	天紀 ₁	外	天紀 ₁
39	外廚 ₆	외	外廚 ₆	外	外廚 ₆
40	天廟 ₁₄	외	天廟 ₁₄	外	天廟 ₁₄
41	東廡 ₅	외	東區 ₅	外	東區 ₅
42	器府 ₃₂	외	器府 ₃₂	外	器府 ₃₂

[주의] 『삼가성경』의 #24 芻稿(芻藁)부터 #42 器府까지는 『삼가부찬』에 누락되었고, 『천지서상지』와 『개원점경』에는 존재한다. 또한, 『진지』/『수지』의 항에 *표를 덧붙인 성관은 『수지』에만 나오고 『진지』에는 누락되었다.

* (『삼가부찬』)[甘外]狗國4星在建星東南.; (『천지서상지』)[外官]狗國. 甘氏曰:“4星在建星東南.”; (『개원점경』)[甘外]狗國星占. 荊州(占)曰:“狗國4星在建星東南.”; (『진지』,『수지』)[中宮](建星之)東南4星曰狗國.

十 (『삼가부찬』)[甘外]土公2星在東壁南.; (『천지서상지』)[外官]土公. 甘德曰:“2星在東壁南.”; (『개원점경』)[甘外]土公星占. 甘氏曰:“土公2星在東壁南.”; (『진지』,『수지』)壁南2星曰土公.

卅 (『삼가부찬』)[甘外]土公吏2星在東壁南.; (『천지서상지』)[外官]土公吏. 甘德曰:“2星在營室西南.”; (『개원점경』)[甘外]土公吏星占. 甘氏曰:“土公吏2星在營室西南, 一曰土公.”

(『삼가부찬』)[甘外]鈇鑽在天倉西南.; (『천지서상지』)[外官]斧質. 甘德曰:“5星在天倉西南.”; (『개원점경』)[甘外]鈇鑽星占. 甘氏曰:“鈇鑽5星在天倉西南.”; (『진지』,『수지』)없음.

∥ (『진지』)[外官](天倉之)南4星曰:天庾.; (『수지』)[外官](天倉之)西南4星曰:天庾.

△ (『천지서상지』)[外官]關丘. 甘德曰:“2星在南河南.”; (『개원점경』)[甘外]關丘星占. 甘氏曰:“關丘2星在南河南.”; (『진지』, 『수지』)[中宮]南河南3星曰關丘.

무함중외관					
『삼가성경』		『서상지』		『진·수지』	
番	성관	내외	성관	中外	성관
1	天尊 ₁	내	大尊 ₁	中	太尊 ₁
2	三公 ₃ [*]	내	三公 ₃	中	三公 ₃
3	大理 ₂		大理 ₂	中	大理 ₂
4	女御 ₄		女御 ₄	中	女御宮 ₄
5	天相 ₃	내	天相 ₃	中	天相 ₃ [†]
6	長垣 ₄	내	長垣 ₄	中	長垣 ₄
7	虎賁 ₁	내	虎賁 ₁	中	虎 [‡] 賁 ₁
8	軍門 ₂	외	軍門 ₂	外	軍門 ₂
9	土司空 ₄	외	土司空 ₄	外	土司空 ₄ [#]
10	陽門 ₂	외	陽門 ₂	外	陽門 ₂
11	頓頑 ₂	외	頓頑 ₂	外	頓頑 ₂
12	從官 ₂	외	從官 ₂	外	從官 ₂
13	天福 ₂	외	天福 ₂	中	*天福 ₂
14	鍵閉 ₁		鍵閉 ₁	中	鍵閉 ₁
15	罰 ₃		罰 ₃	中	*罰星 ₃
16	列肆 ₂		列肆 ₂	中	*列肆 ₂
17	車肆 ₂		車肆 ₂	中	*車肆 ₂
18	帛度 ₂		帛度 ₂	中	*帛度 ₂
19	屠肆 ₂		屠肆 ₂	中	*屠肆 ₂
20	奚仲 ₄		奚仲 ₄	中	*奚仲 ₄
21	鉤 ₉		鉤星 ₉	中	鉤 ₉
22	天桴 ₄		天桴 ₄	中	天桴 ₄
23	天籥 ₈	외	天籥 ₈	中	天籥 ₈ ^Δ
24	天淵 ₁₀	외	天淵 ₁₀	外	天池 ₁₀ [◊]
25	齊 ₁	외	齊 ₁	外	齊 ₁

	趙 ₂	"	趙 ₂	外	趙 ₂
	越 ₁	"	鄭 ₁	外	鄭 ₁
	鄭 ₁			外	越 ₁
	周 ₂	"	周 ₂	外	周 ₂
	秦 ₂			外	秦 ₂
	代 ₂	"	代 ₂	外	代 ₂
	晉 ₂ [1]	"	晉 ₁	外	晉 ₁
	韓 ₁	"	韓 ₁	外	韓 ₁
	魏 ₁	"	魏 ₁	外	魏 ₁
	楚 ₁	"	楚 ₁	外	楚 ₁
	燕 ₁	"	燕 ₁	外	燕 ₁
26	離瑜 ₃	외	離瑜 ₃	外	*離瑜 ₃
27	天壘城 ₁₃	외	天壘 ₁₂	外	天壘城 ₁₃
28	虛梁 ₄	외	虛梁 ₄	外	虛梁 ₄
29	天錢 ₁₀	외	天錢 ₁₀	外	天錢 ₁₀
30	天岡 ₁	외	天剛 ₁	外	天綱 ₁
31	鈇鑽 ₂ [↓]	외	鈇質 ₂	外	*鈇質 ₃
32	天庫 ₁₀		天廐 ₁₀	中	天廐 ₁₀
33	天陰 ₅	외	天陰 ₅	外	*天陰 ₅

* (『삼가부찬』)[巫咸]三公₃星在北斗魁前第1星西.; (『천지서상지』)[內官]三公. 巫咸曰:“3星在北斗魁第1星西.”; (『개원점경』)[巫咸]三公星占. 巫咸曰:“三公在北斗魁第1星西.”; (『진지』, 『수지』)杓南三星及魁第1星西₃星皆曰三公.

† (『진지』)[中宮]酒旗南三星曰天相.; (『수지』)[中宮]酒旗南二星曰天相.

‡ 『진지』와 『수지』에는 모두 武貴이라 하였으나 이는 唐의 太祖인 李虎에 대한 피휘이다. (大淵貴之, “避諱による唐代類書の部立て改変について”, 『九州中国学会報』 46 (2008), 1-16; 辻正博, “唐代寫本における避諱と則天文字の使用 - P.5523 recto の書寫年代について”, 『敦煌寫本研究年報』 10(2) (2016), 437-448.)

(『삼가부찬』)[巫咸]土司空₄星在陽門南; (『천지서상지』)[外官]土司空. 巫咸曰:“4星在軍門南.”; (『개원점경』)[巫咸]土司空星占. 巫咸曰:“土司空四星在軍門南.”; (『진지』, 『수지』)[外官]靑丘西₄星曰土司空. 이 별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土司空₄로 되어 있다. 한편, 『수지』에는 “天溷南1星曰土司空”이 또 있고 『진지』에는 없으나, 이 별은 『천상열차분야지도』에 ‘司空’로 되어 있으며 위의 土司空₄星과는 다른 별이다.

|| (『삼가부찬』)[巫咸]從官₂星在房西南, 南北列.; (『천지서상지』)[外官]從官. 巫咸

曰:“2星在房西, 南北列.”; (『개원점경』)[巫咸]從官星占. 巫咸曰:“從官2星在房星南.”; (『진지』, 『수지』)[外官]從官2星在積卒西北. 태미원 안에 들어 있는 [中宮]從官1星과 다른 성관이다.

△ (『삼가부찬』)[巫咸]天籥8星在斗杓第2星南, 一曰西.; (『천지서상지』)[外官]天籥. 巫咸曰:“8星在南斗杓第2星西.”; (『개원점경』)[巫咸]天鑰星占. 巫咸曰:“天鑰8星在南斗南杓第2星西.”; (『진지』)[中宮]天籥8星在南斗柄西.; (『수지』)[中宮]天籥8星在南斗杓西.

◇ 唐高祖 李淵에 대한 피휘. → 天淵.

↓ (『삼가부찬』)[巫咸]鈇鑕2星在八魁西.; (『천지서상지』)[外官]鈇質. 巫咸曰:“2星在八魁西北.”; (『개원점경』)[巫咸]鈇鑕星占. 巫咸曰:“鈇鑕3星, 在八魁西北, 一曰鈇鉞.”; (『수지』)[外官]八魁西北3星曰鈇質, 一曰鈇鉞. 『진지』에는 누락됨.

Interfacial Boundary between the Capital and Provincial Officials in Ancient Chinese Asterisms

AHN Sang-Hyeon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Abstract. Ancient Chinese asterisms are thought to have been arranged in a celestial bureaucracy. Especially, asterisms are thought to belong to either capital officials (中官) or provincial officials (外官). In the 3rd century, *Chenzhuo* (陳卓) compiled the *Astronomical Canon of Three Schools* (三家星經 *San Jia Xing Jing*) by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sterisms preserved by the three major schools. In the *Canon*, only the asterisms of *Wuxian* (巫咸) school are listed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groups of officials. Thus, those asterisms could not have been used to clarify under what criteria those two kinds of officials was distinguished. In this paper, the asterisms of the *Wuxian* school are separated into the two groups of officials by using references from additional literatures such as *Cheonji Seosangji* (天地瑞祥志) of the *Silla* dynasty and the two astronomical treatises of *Chenshu* (晉書) and *Suishu* (隋書) written by *Li Cunfeng* in the early *Tang* dynasty. Then, all the asterisms in each group of officials, as well as 28 lunar lodges are plotted on the star-chart of *Cheonsang-yeolcha-bunyajido* (天象列次分野之圖) with different marks. We find that in Chinese asterisms capital officials had been separated from provincial officials by an interfacial belt made of the 28 lunar lodges. This finding seems understandable because the 28 lunar mansions had been regarded as feudal lords ruling provincial states in the ancient Chinese astronomy.

Keywords. *San Jia Xing Jing* 三家星經, capital officials 中官, provincial officials 外官, *Cheonji Seosangji* 天地瑞祥志, *Chenshu* 晉書, *Suishu* 隋書